



3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하라"

전주매일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음 10월 24일) 제314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6일 삼양이노켄(주) 군산공장 증설 준공식이 군산자유무역지역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과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김임준 군산시장 등 참석자들이 준공기념 세레모니를 갖고 있다.

친환경 플라스틱 원료 공장 증설

삼양이토크 군산공장 증설 준공식... 2020년 착공 670억 투자 32명 일자리 창출

식물자원 추출 가공해 만든 이소소르비드 활용, 전기차 등 미래모빌리티 시장 선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삼양이노켄(주)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친환경 플라스틱 원료인 이소소르비드(ISB) 상업화 공장 증설 준공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삼양이노켄(주)은 16일 김관영 도지사,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김임준 군산시장 등 지역관계 및 업계 주요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된 ISB 공장은 약 670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20년 5월 이후 약 1년 4개월에 걸쳐 건설됐으며, 기존의 석유화학계 플라스틱이 아닌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ISB 생산 공장이다.
ISB는 옥수수 등 식물자원에서 추출한 전분을 화학적으로 가공해 만든 친환경 바이오 소재로, 이를 이용해 개발한 친환경 접착제는 전기차(EV), 전기트램(e-Tram) 등 미래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관계자는 "2022년 2월 상업운전

을 최초로 개시했고, 향후 설비 효율화와 사업 다변화 등에 집중할 예정으로, 화이트 바이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연간 3~4만 톤까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점차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19를 통해, 세계는 지금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삼양이노켄이 세계적 ESG 기업 정신을 실천하는 글로벌친환경기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전북도에 지리한 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장 증설을 통해 전기차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 일자리 등 지역경제에 동반 상승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이소소르비드는 기존 화학 소재 대비 탄소중립적인 친환경 소재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소재의 생산은 글로벌 친환경 소재 시장을 선도할 좋은 기회"라고 말하며, "전북도에 지리한 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김경수 기자 · 군산=김판곤 기자

도, 전북문화관 민간위탁 대상기관 공모... 내년 1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전라북도문화관의 위탁 기간이 다음달에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응모 자격은 전라북도문화관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고, 공고일 현재 전북도에 소재지(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현장 설명회

내일 현장 설명회 개최
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전라북도문화관(다목적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응모 신청서는 25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전북도 문화산업과에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전북도는 수탁운영자 선정에 위해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 법인(단체·개인)의

사업 계획서 및 제안 발표를 종합 검토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역량 있는 법인(단체·개인)을 운영자로 선정해 그 전문성과 노하우를 전라북도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및 서식 등

구체적인 공모 내용은 전라북도 누리집(<http://www.jonbuk.go.kr>) 공고/고시란과 나라장터(<https://g2b.go.kr>) 입찰정보란에 게시된 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거나 문화산업과(063-280-2493)로 문의하면 된다.

전선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역량있는 수탁기관(운영자)을 선정해 전라북도문화관이 전북 문화의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준비한 만큼 좋은 결실 얻길"

김관영 도지사, SNS 통해 대입 수능 수험생 응원
"안전 수능 치를 수 있도록 행정적 동원해 도울 것"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실을 얻길 바랍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수능을 하루 앞둔 16일 김관영 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실을 얻길 기대한다"는 덕담을 건넸다.
김 도지사는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수험생들은 이미 인생의 승리자이며, 오늘은 여러분 인생



의 결실산이 아니라 작은 전환점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기를 부탁한다"고 격려했다.

또 "고된 수험생활을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돕겠다"는 뜻도 전했다.

한편,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도내 6개 지구, 70개 시험장에서 17,100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진다. 전북도는 공공기관 소속 비상수송차량 지원, 공무원 출근시간 조정,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지원 등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수 기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전북도, 지방세 272명·지방행정제재부과금 28명 등

전북도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300명에 대한 체납정보를 전북도 시·군과 위택스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16일 오전 9시부터 일제히 공개한다"고 전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분야 272명(개인 154, 법인 11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28명(개인 25, 법인 3)이고,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각각 97억 원과 89억 원으로 최대 체납액은 개인 4억원, 법인 7억원이다.

올해 명단공개는 각 자치단체별 명단공개로 대상자가 중복공개 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2년 명단공개에 대해 명단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신규 체납자로서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300명(개인 173, 법인 127)이 확정됐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출구금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기존의 체납징수 방법 외에도 맞춤형 체납분석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자체세입확충에 민생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축! 전주매일 창간